

사업 다각화 통해 제2의 도약 다짐

산업포장 전용 드라이라미네이터 본격 도입



조 일 행

(주)유래코 대표이사

장기화된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과 미래의 불안감으로 현재 포장산업은 내수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은 당연지사.

그러나 이렇수록 기업은 어려운 여건을 돌파하고 관련 사업의 다각화와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차별화된 시장의 확보를 위해 근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글로벌 마케팅 일환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 (주)유래코가 생산하는 수축필름



▲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위치한 (주)유래코

노력하는 업체가 있다.

1969년 창립 이래로 꾸준히 성장, 전년 매출 2백10억 원을 달성, 수축필름 업계에서도 이미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정평이 나있는 (주)유래코(대표이사 조일행)는 기존 수축 필름의 생산 및 인쇄 가공 포장재와 더불어 산업 포장 전용 드라이라미네이터를 도입했다.

조일행 사장은 “37년 동안 한결같이 수축필름 업계에 몸담아 오면서 동정업계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아왔지만 국내 경기 악화로 인해 내수 시

장의 한계를 느끼게 됐다”며 “유래코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기 위해선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3년의 준비기간을 통해 올해 초 기계를 발주하여 설치하게 된 유래코의 산업 포장 전용 드라이라미네이터는 최장 생산 폭이 2천mm에 달해 기본 로스율을 최소화 시키고 대용량 산업 포장재 생산까지도 가능하게 설계돼 있다.

또한 생산 현장에 클린룸 설비도 완벽하게 갖춰 포장재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오염원을 생산 초기부터 철저히 차

단, 양질의 제품만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사장은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 시행 착오와 자금난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종합적으로는 회사 발전의 투자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래코는 올해 내로 가동의 안정성을 확보해 내년부터는 해외시장 공략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재 유래코는 수축필름(PVC, OPS) 및 라벨(OPS, PET, PVS, PE, OPP), 열수축 캡실용 라벨, 고수축 필름,

UWRAPCO

PE 스트레치라벨, OPP 자동 라벨(드라이 증착), 특수 수축필름(증착 수축)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필름에서 인쇄까지 압출, 연신, 인쇄, 자동라벨링 공정 등의 최첨단 시스템 통해 유래코는 고품질 제품을 고객에게 납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축필름 전문 업체답게 1999년 ISO 9002 인증을 획득, 동종업계를 선도해 오고 있다. 또한 2002년 생수병에

적용하는 라벨의 실용신안을 등록하고 2004년에는 삼백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집트, 태국, 대만 등에 활발히 PVC 수축필름 등을 수출하고 있는 유래코는 올해 칠백만불의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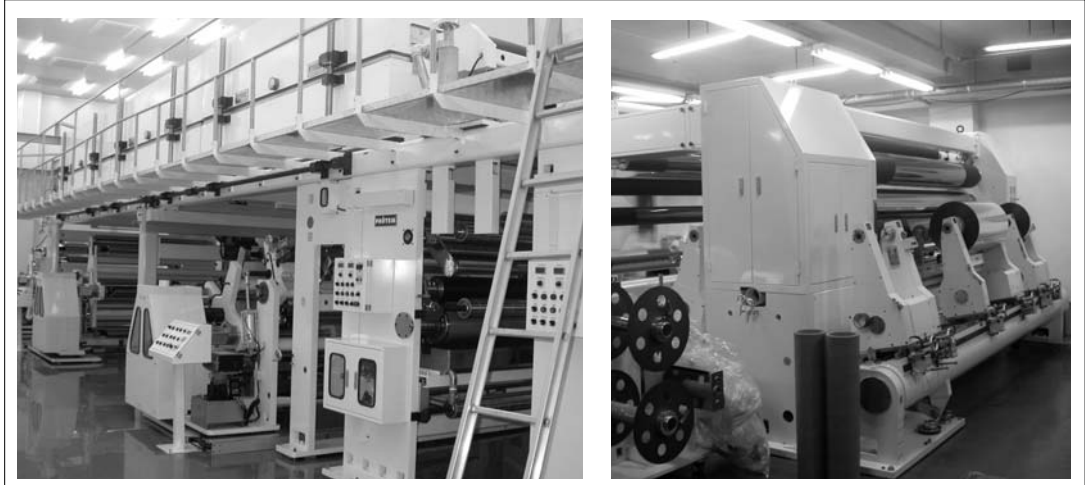
PVC 필름의 경우 용기형상이 원형, 사각, 타원형과 관계없이 PET, 플라스틱 용기 및 캔, 유리병 등에 널리 적용이

가능하며 인쇄성, 광택성이 좋아 수축전 포장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된다. 하지만 환경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는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PVC 필름이 전면 중단되면서 유래코는 수출 활로를 모색, 100% 전량 수출에 성공했다. 또한 수출에 주력하기 위해 2000년 (주)유주왕에서 유래코로 회사명을 변경할 정도로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 (주)유래코의 생산현장



▲ (주)유래코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해 공급량이 부족할 정도로 성공적인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얻었다.

해외시장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탄탄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유래코는 파스퇴르유업, 남양유업, 서울우유협동조합, 제주도지방개발공사 등과 10년 넘게 거래하며 요구르트, 생수 라벨 등을 공급하고 있다.

유래코는 차별화된 마케팅, 엄격한 품질관리 등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 강화는 물론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에 매진하며 회사 발전을 꾀하고 있다.

‘기본에 충실할 것’을 사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조 사장은 “50여명의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 고 싶다”며 “유래코의 모든 직원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자기 계발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신규투자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온 직원이 매진하여 유래코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고 경영자로서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발전을 위해 적절한 타이밍에 설비를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조 사장.

2004년 유래코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조 사장은 새로운 비전을 통해 유래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여 미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렸다.

37년 동안 얻은 경험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술투자를 밑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게 된 (주)유래코.

확실한 신념으로 모범적으로 수축포장업체를 이끌어 온 만큼 (주)유래코의 미래는 밝기만 하다. ☐

이한열 기자